진실이 오른다 -밀레
MILLET 아웃도어의 진실-밀레

光州日報

우암학원 창학63주년
광주의 새로운 명문 대학교 | 꿈을 이루는 특성화 대학
남부대학교 전남과학대학교
062)970-0114 061)360-5050

구속수감 비서실장에 1년간 봉급 준 곡성군 ▶6
윤석민 선발 복귀…위기의 KIA '돌파球' ▶14
발암물질 배출 전국 최고 '청정 전남' 무색 ▶17

1952년 4월 20일 창사 대표전화 (062)222-8111
kwangju.co.kr
제19486호 1판 2013년 5월 15일 수요일 (음력 4월 6일)

33년, 가시지 않는 그날의 아픔

14일 오후 광주시 북구 운정동 국립5·18민주묘지 유영봉안소를 찾은 조선대 행정복지학과 학생들이 희생자들의 영정 사진을 둘러보며 5·18의 의미를 되새기고 있다. /김진수기자 jeans@kwangju.co.kr

5·18 33주년, 국민대통합의 場 만들자

여야 지도부·정부 주요인사 대거 광주로

朴대통령 '불통' 벗고 통합 의지 천명해야

'임을 위한…' 기념곡 지정 실질조치 필요

5·18 광주민주화운동 33주년 기념식을 국민대통합의 계기로 삼아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이날 기념식에 박근혜 정부 핵심 인사들은 물론 여야 정치권, 전국의 지방자치단체장들이 한 자리에 모일 예정이기 때문이다. 〈관련기사 2·3면〉

이에 따라 지난 대선에서 '국민대통합'을 최대 공약으로 내세웠던 박근혜 대통령이 어떠한 메시지를 제시할 것인지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14일 정치권과 광주시에 따르면 광주민주화운동 33주년 기념식에는 박근혜 정부 장관들과 청와대 수석비서관 등 핵심 인사들이 대거 참석할 예정이다.

여야 정치권도 이날 광주로 총집결한다.

민주당은 16일 광주에서 의원총회를 열고 '광주 선언'을 통해 광주정신의 계승을 강조하고 혁신에 대한 강력한 의지를 밝힐 계획이다. 18일 기념식에는 당내 대부분의 의원들이 참석한다.

새누리당도 황우여 대표를 비롯한 지도부는 물론 당내 의원들이 기념식에 대거 참석할 것으로 알려졌다. 새누리당은 이날 기념식 참석을 통해 호남에 대한 각별한 관심과 애정을 강조하면서 과거와는 달라진 모습을 보인다는 계획이다.

호남의 지지를 놓고 민주당과 경쟁을 벌이고 있는 무소속 안철수 의원도 오는 17일 4월 보궐선거 승리 후 처음으로 광주를 방문, 전야제와 다음날 열리는 기념식에 모두 참석한다는 방침이다.

특히, 새누리당 소속인 김범일 대구시장이 영남권 자치단체장으로서는 처음으로 기념식에 참석하는 것은 물론 전국 지방자치단체장들의 발길도 이어질 예정이다.

이처럼 박근혜 정부 핵심 인사들과 여야 정치권, 전국 지방자치단체장들이 대거 참여한다는 점에서 이날 기념식이 '국민대통합'의 계기가 돼야 한다는 지적이다.

이를 위해서는 박근혜 대통령이 이날 기념식을 계기로 국민대통합의 의지와 메시지를 전달하는 것이 우선돼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여기에 '임을 위한 행진곡'을 5·18 공식 기념곡 지정을 약속하는 등 구체적이고 실질적인 조치가 뒤따라야 한다는 것이다.

박근혜 대통령이 정부 출범 이후, 형성된 불통의 이미지를 벗고 국민대통합을 국정 운영의 동력으로 삼아야 한다는 주장이다.

여야 정치권도 이날 기념식을 계기로 고질적 갈등과 대립구도에서 벗어나 상생의 정치를 선언하면서 민생을 바탕으로 한 국민대통합을 정치적 화두로 삼아야 한다는 지적이다.

특히, 전국의 지방자치단체장들이 대거 기념식에 참석한다는 점에서 5·18 정신이 해묵은 지역주의를 불식시키는 계기로 작용할 것이라는 기대감도 커지고 있다.

정치권 관계자는 "5·18 33주년을 맞아 광주 정신을 매개로 국민대통합이 이뤄지기를 간절히 바란다"며 "이를 위해서는 박근혜 대통령과 여야 정치권의 강력한 의지가 필요한 시점"이라고 말했다.

/임동욱기자 tuim@kwangju.co.kr
/박지경기자 jkpark@kwangju.co.kr

광주 '동아시아 문화도시' 선정

문화부, 국비 100억 지원…내년 한중일 교류행사

광주시가 '2014년 동아시아 문화도시'로 선정돼 국비 100여억원을 지원받게 됐다.

광주시는 "문화체육관광부가 부산·대구·전주·경주·부천 등 6개 도시를 대상으로 심사를 벌여 광주를 2014년 동아시아 문화도시로 최종 선정했다"고 14일 밝혔다.

이는 건국 이래 최대 규모의 국가 프로젝트 사업인 아시아문화중심도시 조성사업과 함께 문화예술도시, 문화콘텐츠 허브 도시라는 광주의 도시브랜드가 작용한 것으로 분석된다.

동아시아 문화도시는 한·중·일 3국 사이의 문화교류와 융합, 상대 문화 이해를 위한 거점 도시를 선정해 교류행사를 개최하는 사업이다.

주요 프로그램은 내년 3월 오픈행사를 시작으로 9월까지 동아시아 유니버시아드 캠프 등 15개 행사가 열리며, 10월에는 아시아전통오케스트라 공연 등 17개 행사가 펼쳐진다. 또 문화부의 '문화의 달' 행사와 광주비엔날레 20주년, 세계수소에너지대회 등 광주시가 유치한 국제행사와도 연계해 추진된다.

광주시는 조만간 동아시아문화도시 추진위원회와 사무국을 구성하고 구체적인 실행계획을 수립해 추진할 계획이다.

광주시 관계자는 "첫 도시로 선정됐다는 상징적인 의미와 함께 아시아문화중심도시 조성사업과의 시너지 효과가 기대된다"며 "한국형 문화도시 발전모델을 제시할 방침이다"고 말했다.

/윤영기기자 penfoot@kwangju.co.kr

'오월민심' 사로잡을 '킬러메시지' 찾아라

민주당·안철수 '5·18 광주 선언' 고심

민주당과 안철수 의원 진영이 오월 호남 민심을 사로잡을 '킬러 콘텐츠' 마련에 부심하고 있다.

5·18 광주민주화운동 33주년을 맞아 호남의 심장인 광주를 방문하는데다 10월 재보선에서 한 판 승부가 불가피하다는 점에서 호남 민심을 움직일 강력한 '정치적 메시지'가 필요한 상황이기 때문이다.

〈관련기사 3면〉

일단 민주당은 16일 '광주선언'을 통해 강력한 혁신의 메시지를 전달한다는 계획이다. 혁신 선언에는 특권·기득권 내려놓기 등 정치 및 정당 혁신 계획과 민생 중심의 '탈 정치' 구상이 담길 것으로 알려졌다.

민주, 혁신 의지 전달

安, 새정치 방향 제시

하지만, 호남 민심을 뒤흔들만한 혁신책이 마땅치 않아 막판까지 고민을 거듭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새로운 지도부가 출범한 마당에 기존에 정치권에서 거론됐던 일반적인 내용이 '광주선언'의 혁신책으로 제시된다면 호남 민심에 오히려 역풍을 불러올 수 있기 때문이다.

민주당 관계자는 "흔들리고 있는 호남 민심을 잡기 위해서는 강력하고 신선한 혁신책 제시가 필요하지만 뾰족한 방안이 없어 고민"이라며 "일단, 광주선언에는 혁신에 대한 민주당의 의지와 진정성을 최대한 담는다는 방침"이라고 말했다.

안철수 의원 진영에서도 광주 방문에서의 메시지 전달을 놓고 고심을 거듭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광주를 중심으로 한 호남 민심의 향배가 향후 안 의원 진영의 정치적 진로에 결정적인 영향이 불가피하기 때문이다.

특히, 안 의원의 국회 입성 이후에도, 그가 주장해왔던 '새정치'의 구체적인 실체와 방향이 제시되지 않으면서 '안풍(안철수 바람)'의 위력이 예전 같지 않다는 목소리도 커지고 있는 상황이다.

이에 따라, 안 의원 진영에서는 광주 방문을 통해 '새정치'에 대한 강력한 메시지 전달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져지고 있다. 10월 국회의원 재보선 참여는 물론 정치 세력화에 대한 보다 구체적인 방향이 제시될 가능성도 높다는 관측이다.

안철수 의원 측 핵심 관계자는 "아직까지 어떠한 메시지를 전할지는 구체적으로 정해지지 않았다"며 "다만 안 의원이 현장에서 기자들의 질문에 답을 하는 형식으로 메시지가 전달될 수도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임동욱기자 tuim@kwangju.co.kr

학교설립 59주년 (1954~2013)
59년 전통의 기독교 명문대학
광신대학교
입학문의 학 부 (062)605-1114
대학원 (062)605-1115

61 광주일보 창사61주년 since 1952 화갑의 해
ABC협회 인증
호남 최대 발행부수
광주일보는 지역 대표 정론지입니다